

#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프랑코의 탄압\*

- 카를로스 폰세카의 소설 『13송이 빨간 장미들』과 마르티네스 라사로의 영화 『13송이 장미들』을 중심으로

송 선 기  
(조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스페인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는 중요한 테제는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스페인 문제이다. 이는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스페인과 관련된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가들 사이에서 끝없이 논란거리가 되어져왔고, 해결책을 찾고자 각자의 관점에서 수없이 진단되어진 문제이기도 하다.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하나의 스페인’이라는 물리적 개념의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각 지역의 상이한 언어, 민족, 역사에 기원을 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스페인과 상충되어왔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스페인에서의 긴장관계는 밖으로부터 인식되는 공식적인 국가와,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집단적 공동체로서의 민족들 간의 충돌에 기인한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이러한 긴장관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충돌이 20세기 들어 첨예화되는데 그 결정판이 제2공화국의 탄생이었다. 공화 정부는 그간의 왕정이 보여주지 못했던 지역적

\* 이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다원성을 인정하고 지역 자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성립된 공화정부에 몇몇 군부 파시스트들과 교회 그리고 귀족 등이 합세하여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 쿠데타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빠르게 성공하지 못하고 지구전이 되면서 내전으로 비화되었고, 이 내전에서의 승리자 프랑코는 이후 약 36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된다. 그의 독재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늘에 열중하자는 취지의 소위 망각협정(Pacto de olvido)이라는 과거사 묻어두기 논리 속에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살상과 보복의 역사는 수면 하에 머문다.

그러나 1975년 독재자가 죽은 후 상대적으로 자유화된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의 언론계, 역사학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의해 프랑코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날조되고 은닉된 과거의 면모들을 밝혀 보려는 시도가 소설을 통한 알레고리적 표현 기법이나 픽션의 도구들을 빌어 조심스럽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까지도 조심스러웠던 과거사 짚어보기는 2004년 사회당 정권 집권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내전 직후 스페인 내에서 프랑코 파에 의해 자행된 인민전선, 공산당 지지계열의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체포, 구금, 즉결심판, 처형 과정의 일부가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과거청산의 기치 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전이 끝난 후 승리자들은 1939년 2월 9일 공포된 ‘정치적 책임에 관한 법률(La ley de Responsabilidades Políticas)’의 제정을 통해 1934년 이후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 즉 프랑코파에 의한 새로운 질서 확립에 도전했던 반대세력의 모든 활동에 대한 탄압에 돌입하여 수만 명을 수색, 차출, 재판, 처형하는 피의 살육의 장을 펼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13송이 장미들’ 관련 사건도 프랑코 군대에 의한 공화주의 계열에 대한 보복과 숙청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내전 종결 직후 프랑코파의 군경합동 수사본부의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에 의해 1939년 8월 5일 처형된 56명중 13명이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들 중 6명은 미성년자들이었다. 젊은 나이로 인해 이 여성들은 1980년대 이후 ‘13송이 장미들’이라고 명명된다. 이 사건도 프랑코 치하에서 자유로운 언급이 통제된 상태에서 묻혀 있었으나, 사회당 정권의 등장과 과거사 청산의 분위기 속에서 파시즘의 대두와 형제살해의 증오로 얼룩진 당시의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

들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카를로스 로페스 폰세카(Carlos López Fonseca)의 증언소설 『13송이 빨간 장미들Las trece rosas rojas』에서 제시하는 증언들과 인터뷰, 그리고 사건관련 일지 및 서류들이 역사적 기록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며, 에밀리오 마르티네스 라사로(Emilio Martínez Lázaro) 감독의 영화 『13송이 장미들Las trece rosas』을 분석하여 감독이 가능한 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피고자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스페인의 역사적 비극이 어떻게 채색되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현존하는 주제인가를 사유해 볼 것이다. 셋째, 또한 역사가 눈감고 있던 실제 사건을 기자들과 작가들이 어떻게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으로 끌어내고 있으며,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사유해 보는데 있다. 넷째, 승자들의 패자들에 대한 보복과 억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확인하며, 희생자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II. 『13송이 붉은 장미들』: 기억, 증언<sup>1)</sup>, 그리고 편지들을 통해 본 보복과 억압

적색분자들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1939년 8월 5일 마드리드 공동묘지의 담벼락에서 총살당한 13명의 여성들, ‘13송이 장미들’ 관련 사건이, 사건발생으로부터 60년이 지난 후<sup>2)</sup> 복잡적이고 심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 
- 1) 헤수스 페레로(Jesús Ferrero)는 자신의 소설 『13송이 장미들』에 대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은 그 사건과 관련되었지만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인물들이 너무 고령이어서 그들이 들은 것과 얘기한 것을 서로 뒤섞곤 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진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 2) 최근 이 사건 관련 기념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밍고 말라곤 추모위원회(La Fundación Domingo Malagón)’, ‘스페인 공산당(PCE)’, ‘13송이 장미들 추모위원회(La Fundación Trece Rosas)’ 등에서 총살형에 처해진 장소에 기념프랑 카드를 걸고 매년 8월 5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05년 '스페인 사회노동당

존재하는 문서들을 분석하여 증언소설로 출판된 카를로스 폰세카(Carlos Fonseca)의 『13송이 빨간 장미들』<sup>3)</sup>과 더불어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내전 종결 시점 당시 스페인 공산당(PCE) 지도부는 프랑코 군대가 마드리드에 입성하기 전 중요인사들은 망명시키고, 이후 마드리드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전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비밀기구를 남기려 한 시도로부터 시작된다.<sup>4)</sup> 그러나 그 기구(JSU)<sup>5)</sup>는 새로운 체제하의 프랑코 정권의 수사관들에 의해 와해되고 기구재건을 획책했던 당사자 56명은 체포되어 마드리드 외곽 벤타스(Ventas) 감옥으로 이송되어 재판받는다. 그들은 반란을 지원하고 프랑코에 반대하여 모반을 획책한 혐의로 기소되어 총살형에 처해진다. 이 비극적 처형이 망각협정과 프랑코 독재체제의 검열과 제지로 공식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하고 묻혀있다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증되고 있는 것이다.<sup>6)</sup>

---

(PSOE)와 국회의원 호세 세파다(José Cepada)의 주선으로 ‘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13송이 장미들’ 기념사업회가 창립된다.

- 3) ‘Las Trece Rosas’의 프로필을 통해 그녀들이 대부분 스페인 공산당이나 통합사회주의 청년동맹 소속의 요원들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성적 충동으로 길거리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각자 이데올로기적 확신 속에 투쟁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이러한 결정은 프랑코주의자들로 구성된 국가수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fensa)가 1939년 3월 8일 제안했었던 수도 양도 제안을 명확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승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폭발의 장, 그 심연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잡히는데 그 속에 13명의 여성들이 있다.
- 5) 이 기구는 공산주의 청년단과 청년사회주의 연맹(la Unión de Juventudes Comunistas y la Federación de Juventudes Socialistas)의 융합으로 탄생한다. JSU는(Juventudes Socialistas Unificadas)의 약칭이며, 이하 ‘통합사회주의 청년단’과 ‘JSU’로 본 논문에서는 병기한다.
- 6) 이 사건은 1985년 신문기자 하코보 가르시아(Jacobo García)에 의해 연구되어진 후, 최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조사를 헤수스 페레로(Jesús Ferrero)가 『13송이 장미들Las trece rosas』, 이라는 주제로 소설화 하였고, 카를로스 폰세카는 『13송이 붉은 장미들』 통해 관련 사건을 픽션이 아닌 증언소설로 구체화한다. 같은 해 델타 필름(Delta Films)에서 베로니카 비힐(Verónica Vigil)과 호세 마리아 알멜라(José María Almela) 두 제작자(프로듀서)들에 의해 다큐멘터리 『내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Que mi nombre no se borre de la historia』가 제작된다. 2006년 기자이며 작가인 앙헬레스 로페즈(Ángeles

승리자인 프랑코 측은 마드리드 입성과 동시에, 이후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의 결집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특히 공산주의자들, 공화파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직의 발흥을 시도하는 집단들의 싹을 자를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들은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관련자 및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체포하는데 그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파괴당하고 패배당한 마드리드는 이후 36년 동안 지배하게 될 프랑코 장군에 의해 강요된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코파의 억압과 체포의 장을 확인하기 위해 폰세카가 그의 증언소설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스페인 공산당’과 ‘통합 사회주의 청년연맹’의 지도부 붕괴 과정에 대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에서의 이 단체의 지휘권은 처음 마틸데 란다 바스(Matilde Landa Vaz), 일명 엘비라(Elvira)에게 넘겨진다. 그러나 몇 일후 체포되고 이후 지역위원회 총무 호아킨 로드리게스 로페스(Joaquín Rodríguez López)에게 넘겨지지만 체포되자 공산당 지도부는 지휘권을 프란시스코 소텔로 루나(Francisco Sotelo Luna), 일명 알리아스 세실리오(Alias Cecilio)에게 넘겨준다. 그도 또한 마드리드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다. 이후 JSU의 수장을 승계한 세베리노 로드리게스(Severino Rodríguez)가 체포되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원들을 고발한다. 다시 호세 페나 브레이(José Pena Brea)로 대체되지만 그도 곧 체포되어 전 조직을 누설한다. 그의 자백으로 1939년 5월에 JSU의 모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때 ‘13송이 장미들’도 포함되어 있다.”<sup>7)</sup>

카를로스 폰세카는 이 사건 관련 개요를 정리하면서 “나는 그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또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 과거의 역사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내 부친의 삼촌이 보관하고 있던 몇몇 서류들을 통해 내게 찾아왔다. [...] 가족들은 내 의지대로 하라며 그들이 갖고 있던 자료를 내게 맡겼다.”<sup>8)</sup>고 술회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을 실제적 사실에 접근시키는 방법

López)가 출판한 절반은 소설이고 절반은 엄밀한 역사인 『마르티나, 13번째 장미 *Martina, la rosa número trece*』가 출판된다. 이후 2007년 카를로스 폰세카의 소설을 에밀리오 마르티네스 라사르가 『13송이 장미들』이라는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조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7) Carlos Fonseca, op. cit., pp. 47-119.

으로 그녀들의 처형과 관련하여 경찰 측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비심리’와 ‘즉결심판’ 서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3송이의 장미들’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열다섯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총살형을 면하고 풀려난 마리아 델 카르멘 쿠에스타(María del Carmen Cuesta)의 증언 외에도 수십 명의 당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예를 들면 처형된 당사자들의 가족들, 줄리아(Julia), 디오니시아(Dionisia), 마르티나(Martina)의 조카들의 증언들, 아마 모든 얘기들 중에서 가장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블랑카 브리삭(Blanca Brisac)과 엔리케 가르시아(Enrique García)의 유일한 혈육 엔리케 가르시아 브리삭(Enrique García Brisac)의 증언을 작품에다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몇몇 증언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그녀들이 겪었던 참담했던 현실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13송이의 장미들’과 감방을 공동으로 사용했었고 서로 알고 지냈던 몇몇 여성들은 감옥에서 경험한 일상적 궁핍을 “네그린의 콩죽(Lentejas de Negrín)과 땅바닥의 음식들”<sup>9)</sup>의 예를 들어 증언한다. 당시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겠다고 선언하고, 프랑코 총통 자신도 직접 일간지 기자였던 마누엘 아스나르(Manuel Aznar)<sup>10)</sup>에게 모든 반대파에 대한 관용적 처분을 선언하지만 실제적 현실과는 전혀 반대였다. 사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수천 명이 수용되어 있으니 그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11)</sup> 감옥 내부는 엉망의 위생 상태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상황도 아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나이든 여인들, 미성년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감옥의 통로, 계단, 정원, 화장실 할 것 없이 가득 차 있었고 가까이 있는 동부묘역에서는

8) [http://www.wikipedia.org/wiki/Spanish\\_Civil\\_War](http://www.wikipedia.org/wiki/Spanish_Civil_War)

9) Carlos Fonseca, op. cit., p. 179.

10) 이 사람은 사회당 정권 스페인 총리를 역임했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José María Aznar)의 할아버지였다.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관계임으로 작가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한다. Carlos Fonseca, Ibid, p. 72.

11) 13송이의 장미들은 400명을 수용하기위한 공간에 4,000명의 여죄수들이 차곡차곡 쌓인 벤타스(Ventas)감옥에서 차출된 여성들이었다. (“La corta vida de trece rosas”, *El País*, 2005. 11. 12.)

차출의 위협 하에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감옥의 사람들은 배고픔 외에도 갈증과 악취,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호세피나 아말리아(Josefina Amalia)와 토마사 쿠에바스(Tomasas Cuevas)라는 두 증인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

어쩌다 가끔씩 물차가 물을 실어왔지만 물이 없어서 씻을 수도 없었고 몸의 이들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 [...] 나는 그 안에서 그곳은 지옥이라고 느꼈다. 생리가 있는 날이 와도 가제수건도 위생천도 없어서 빨 수도 없는 걸레조각을 사용해야 했다. 우리 모두는 옴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다. 그들은 몸을 닦으라고 2-3일에 한 번씩 유황과 몇 바가지의 물을 주었다.<sup>12)</sup>

이처럼 정치적 희생자들이 감옥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유린당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쿠데타 세력들은 일군의 고문과 암살을 통해 최종적인 안정을 찾아 가고 있었다. 포화를 동반한 전쟁은 끝났지만 물밑으로는 패배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었다. 탄압을 위한 법들이 제정되고, 1936년 7월 18일 쿠데타 발생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화군 진영에 의한 수호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검거와 차출, 처형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 대상은 대인 범죄뿐만 아니라 종교나 문화·예술 등에 대한 도덕적 범죄까지를 망라한 것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모든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억압이 시작되었다. 그 억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39년 2월 9일 승인된 ‘정치적 책임에 관한 법률’ 이었는데, 이 법으로 1934년 10월 1일 이후 1936년 7월 이전까지 스페인을 희생케 한 모든 질서 파괴를 기도한 자들, 또는 방임한 자들에 대해 물질적으로나 사법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었다.<sup>13)</sup>

프랑코는 “스페인 사람들이여, 경계하라. 스페인은 희생자들에게 영원히 충실 할 것이며 내·외부의 적들에 대항하여 계속 전쟁 중이다. 신의 은총으

12) Carlos Fonseca, op. cit., p. 180.

13) Ibid, pp. 42-43.

로, 유일하며, 위대하고, 자유로운 하나의 스페인을 향한 전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자를 진압하고 섬멸할 것을 확신한다.”<sup>14)</sup> 라고 연설을 통해 경고한다. 따라서 프랑코의 이러한 목적달성 의도와 상황인식은 곧, 모든 반대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민전선 내의 여러 당파, 노조, 프리메이슨 단체 간부들, 즉 공화정부를 후원하고 지지한 정치세력의 전멸을 목표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전술한 범은 내전에 직접 참여한 전투원이나 비전투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것이었다. 수많은 체포자들 중에 그녀들이 있었고, 그녀들도 이 범의 효력과 집행의<sup>15)</sup> 범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의 지옥 같은 여름날의 벤타스 감옥의 상황을 몇몇 여성죄수들은 기억한다. “나는 감방의 창문에서 그녀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우유 배달원들이 짐수레를 끌고 지나갔고 경찰이 그들을 분리했다. 여자죄수들은 3인의 경찰이 2-3인씩 호송했다. 그녀들은 침착한 것처럼 보였다.”<sup>16)</sup> 마리아 델 카르멘 쿠에스타, 그녀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유일한 생존자는 감방의 창문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13발의 총소리를 슬픔에 잠긴 채 들었다고 진술한다.

남아있었던 우리들 몇몇은 아무 말 없이, 그녀들을 데려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한 순간이 몇 시간 같았다. 그녀들을 동반해 갔던 여간수 마리아 테레사 이갈(María Teresa Igual)이 돌아와 우리들에게 ‘그녀들은 매우 조용히 죽음을 맞았고, 여죄수들 중의 한 사람, 안니타(Anita)는 첫 번째 발사에서 숨을 거두지 않았고 사형집행인들에게 ‘나는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외쳤다’고 전해주었다.<sup>17)</sup>

14) *El Pais*, 2005. 11. 12.

15) 페드로 몬톨리우(Pedro Montoliú)는 2004년 그의 저서 『Madrid en la posguerra, 1939-1946. Los años de la represión』, 에서 내전직후 처형된 사람들의 숫자와 당시의 환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악의 달들은, 6월에 227명, 7월에는 193, 9월에는 106, 10월에는 123, 11월에는 201명이 각각 총살되었다. 일별로 피비린내 나는 날들은, 6월 14일, 80명, 6월 24일 102명, 7월 28명, 7월 24일 48명, 8월 5일에는 56명이 처형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녀들도 8월 5일 총살된다. ([http://es.wikipedia.org/wiki/Dionisia\\_Manzanero\\_Salas](http://es.wikipedia.org/wiki/Dionisia_Manzanero_Salas),에서 재인용)

16) Carlos Fonseca, op. cit., p. 237.

17) Ibid, p. 243.

최근의 한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코는 식사시간에도 교수형에 처해야 할 사람, 감형해줄 사람들의 명단을 손수 지정하여 교도소에 통보하고 교도소는 그들의 명단을 낭독하여 처형하는 식이었으며, “어떤 교도소 관리들은 명단 발표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름을 부르다가 잠깐 뜬을 들이기도 하였는데 이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얗게 질려 초주검이 되었고 이 광경을 보면서 즐기기도 했다.”<sup>18)</sup>는 사실은 인간의 비열함의 한계를 보는듯하다. 마리아 델 카르멘 쿠에스타는 선별과 차출의 무시무시한 밤에 대해 얘기를 계속한다. 모두들 누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위해 선별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복도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감옥의 여 간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들을 잃고, 그녀들이 나가는 것을 보는 일이 무서운 것이었다면, 그녀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를 냉정하게 말하는 마리아 테레사 이괄의 얘기를 듣는 일이 더 무서웠다.”<sup>19)</sup>고 술회하고 있다. 팔순의 생존자 마리아 델 카르멘 쿠에스타는 또한 자신의 체포과정을 카를로스 폰세카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구술하고 있는데, 전에 알고 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밀고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당시 15세였지만 밀고자와 파견경찰이 함께 새벽 3시에 자신의 집을 급습한 상황에서도 매우 용감했었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한다. 경찰서에 끌려가서야 자신의 동료들이 여럿 잡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밀고자는 에밀리오 가스파르(Emilio Gaspar)라는 사람이었는데, 내전 기간 동안 JSU본부 사무실에 자주 들렀던 인물이었고 그런 그가 그녀를 밀고한 것이었다. 마드리드 전역에 밀고와 선전이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날마다 이웃, 친구, 가족들 간에도 상호 고발로 점철된다. 행정부서, 대학, 기업들에 프랑코 군대의 스파이들이 침투하여 정보를 캐내어 체포와 처형을 가속화 한다.

나는 체포될 때 15세 이었지만 용감했었지. 다른 동료들이랑 함께 호르헤 후안(Jorge Juan)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녀들 중에는 비르투데스(Virtudes)도 있었어 [...] 그곳에서 우리는 10-15일 간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또 우리들의 저항이 시들어지도록

18) 앤터니 비버, 『스페인 내전』, pp. 697-699.

19) Carlos Fonseca, op. cit., p. 243.

새벽에 심문했었어. 나를 체포했던 경찰들 중의 한사람인 에밀리오 가스파르가 전 JSU출신이라는 사실을 곧 인지했고, 그들은 나의 뺨을 한테 치고는 자리에 앉혔지. [...] 3·4일이 지난 이후부터 우리는 전류가 통하는 고리들이나 차가운 물에 밀어 넣어진 고통에서 오는 놀램으로 울부짖는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지.<sup>20)</sup>

체포자들을 끌고 갔고 고발을 이끌어 내기위해 고문을 가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직은 와해되어갔다. “죄수들을 길거리에 풀어주고 그들을 미끼로 사용하고 그 뒤를 2인의 경찰이 뒤따랐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나를 체포했다”<sup>21)</sup>고 니에베스 토레스(Nieves Torres)씨는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진술한다. 이렇게 폰세카는 망각협정과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스페인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폰세카가 희생자 개개인들의 사생활을 작품을 통해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지만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증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 사실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의 증언, 회고록, 특히 사건 발생당시의 법원과 재판소의 선고 기록물, 사건 당사자들이 기술한 조서의 내용, 당시 팔랑헤당 기관지의 역할을 했던 『아리바(Arriva)』나 『아베세(ABC)』의 기사들 등, 공식 역사의 재현에 의미가 있는 사진들을 작품에 끌어들이므로써 사실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실제의 인물과 사건을 복원하여 공식역사의 기술을 담당해야 할 역사가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 조명을 통해 감상성과 일회성을 극복하고 진실에 근거한 내전 직후의 프랑코파들이 자행했던 슬픈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 Ibid, pp. 156-157.

21) Ibid, p. 153.

### III. 영화: 『13송이 장미들』 객관적 상황묘사

영화대본의 기초가 된 작품은 전술한바와 같이 기자인 카를로스 폰세카가 쓴 증언소설인 『13송이의 빨간 장미들』이다. 이 텍스트의 독서는 영화감독 에밀리오 마르티네스 라사로에게 영화로 옮기는 동기가 되었으며, 익나시오 마르티네스 피손(Ignacio Martínez Pisón)은 폰세카의 작품을 바탕으로 이 영화의 대본을 만든다. 이후 두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신화화 되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실제 사건의 주인공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면서 『13송이 장미들 *Las trece rosas*』이라는 한 편의 위대한 영화로 만들어진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자막에 제시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 사건의 진실성의 구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43명의 남자와, 13명의 여자가 총살형으로 죽어갔다. 거의 대부분이 경범죄자들이었고 이들은 “13송이 장미”로 불렸다. 영화의 내용과 편지들은 모두 전적으로 사실이다.<sup>22)</sup>

이야기의 줄거리는 3부로 나눌 수 있다. 프랑코 군대의 마드리드 입성과정 과 거리 행군 모습, 13명의 소녀들의 체포, 감옥에서의 최후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쟁이 프랑코파의 승리로 점차 굳어져 가자 1939년 2월 25만 명의 공화파 군인들은 비슷한 수의 민간인과 함께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피신했고, 3월5일 당시의 공화국 정부도 프랑스로 망명한다. 3월28일 모든 공화파 부대는 해산하거나 투항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날 국가주의자들은 마드리드에 입성했다. 1939년 4월 1일 프랑코 군대의 입성과 함께 스페인 내전은 종결되고, 코앞에 닥친 피의 억압과 보복이 두려웠던 많은 공화파들은 국외로 피신하지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피신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후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작별의 음악으로 상징되는 울드렌 사인과 함께 영화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22) Emilio Martínez Lázaro, *Las trece rosas*, 119분.

모든 것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는 주인공들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다. '13송이 장미들' 중 두 사람인 카르멘(Carmen)과 비르투데스(Virtudes)가 길거리의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밀려오는 파시즘에 대해 싸워야 한다고 외치며 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장면들로 작품은 시작된다. 한쪽에서는 그녀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한편에서는 해외나 마드리드 바깥으로의 탈출을 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한 행인은 자동차를 타고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데려가 주라고 애원하지만 거절당한다. 사람들이 거리의 한 구석에 있는 대피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아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물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투정한다.

식사를 하는 사이에 공습사이렌이 울리지만 폭격 대신, 승리자 프랑코파가 비행기에서 뿌린 빵 봉지가 우수수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다. 또 다른 '13송이 장미들' 중 두 사람, 죽만 먹어서 배가고픈 홀리아(Julia)는 그 빵을 줍고, 아델리나(Adelina)라는 등장인물은 파시스트의 빵이니 먹지 말라고 외치지만, 그녀도 이내 빵을 주워서 먹기 시작한다. 이데올로기나 배고픔의 해결이냐는 갈등의 순간 빵이 이데올로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식사 시간에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싸우다 패배하고 돌아온 등장인물 홀리아의 남자친구 테오는 전선에서 동지들이 다 도망쳤다고 말함으로써 공화정부의 붕괴를 기정사실화 한다.

등장인물 후안 카네파(Juan Canepa)가 사람들에게 피신을 위한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동안 공습이 있다. 나중에 밝혀지듯 악단에서 연주를 하는 음악가이지만, 그는 공산당을 지지하고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의 피신과 지하활동을 돕기 위해 등장인물 블랑카(Blanca)와 그녀의 남편 엔리케(Enrique)는 전쟁 중에 음악활동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도피자금으로 제공한다. 블랑카와 그녀의 남편 엔리케 사이에는 아들 키케(Quique)가 있다. 팔랑헤주의자들이 길거리를 행진하고 먹을거리를 나누어준다. 배가 고프고 아이들은 그들이 지나간 길을, 혹 먹을거리를 뿌려놓았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닌다. 아이들은 그 의미도 모르는 채로 팔랑헤주의자들이 외치는 프랑코 만세! 스페인 만세! 를 따라 외친다. 카르멘과 비르투데스가 길거리에서 만나 자신들의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길거리에서 팔랑헤주의자들이 프랑코 만세! 스페인 만세! 를 외치고 군중들도 따라서 외친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프랑코 군대 행군가를 시키지만, 이내 어눌하게 노래하는 할아버지의 복부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승리자들에게 이미 용인되기 시작한 폭력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민병대장이 등장하여 프랑코군 총사령부에서 시달된 민병대의 해체를 공식화하고 민병대원들 앞에서 이를 선언한다. 민병대장은 전술한 등장인물 아델리나의 아버지다. 그는 자신의 딸이 공화국을 지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피신시키려 하지만 그녀가 거부한다. 나중에 그녀를 직접 프랑코 군대의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자수시키고 면죄를 받으려 한다. 수사기관은 간단한 조사 후 그녀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민병대장과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녀는 감금되고 결국 출옥하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총살형에 처해진다.

한편 블랑카는 남편 엔리케가 준비한 돈을 가지고 후안의 집으로 가서 활동자금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전달한다. 블랑카는 어떤 정치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신앙심이 깊은 가톨릭교도이지만 남편의 친구인 공산당원 후안에게 자신의 가족이 갖고 있던 돈을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체포, 수감된다. 한편 홀리아는 전차 검표원으로 일하면서 난처한 상황에서 그녀를 도와준 페리코(Perico)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느낀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낭만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는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코 측의 군경합동 수사반의 추적이 본격화 되면서 ‘사회주의 청년연맹’이나 ‘공산당’ 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밀고와 상호간의 배신, 수배, 체포가 격렬하게 진행된다. 전술한 등장인물 공산당 전사 후안 카네파는 자신의 처형과 장모에 의해 밀고 당한다. 그는 군경합동 수사반에 잡혀와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관실 천정에 붙어있던 유리전구를 깨 자신의 목을 가르고 자살한다.

프랑코파의 검경합동수사반의 아우렐리오 페르난데스 폰텔라(Aurelio Fernández Fontela)<sup>23)</sup>는 공화파의 마드리드 봉기 당시에 구성원이었으나, 프랑코파에 의해 체포되고 폭행당한 후 총살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구제된 사람

이다. 이제 그는 새로운 정권의 하수인으로 탈바꿈하여 악랄하게 반 프랑코 진영의 조직원들을 체포, 구금, 수사하는 수사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려는 의도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성적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등 동물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인다.

수사가 끝난 그녀들은 이제 감옥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풀이 죽어 보이지는 않는다. 감방의 간수들도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녀들을 가능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처럼 감독은 증언이나 역사적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 13인의 젊은 여성들의 감옥에서의 체류기간의 몇몇 에피소드들을 순화시키고, 경찰서에서 겪었던 학대와 고문 그리고 그녀들이 벤타스 감옥에 있던 동안 한탄스러운 감옥의 위생 상태에 대한 거친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절제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묘사에는 고도의 픽션으로서의 각색이 있다. 감방 안에서지만 그녀들은 모여서 교도소의 환경과 여건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벤타스 감옥은 멋진 호텔. 음식과 서비스가 최고지. 침대도 쉴 시간도 없다네. 차라리 지옥이 낫겠어. 화장실만 가려 해도 긴 줄을 서고 빵은 시멘트 냄새가 폴폴. 점심엔 콩 요리를 주는데 하루에 한 그릇 밖에 못 먹지. 멋진 타일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매일 아침 허리 아파 죽겠어.<sup>24)</sup>

한편 감옥외부의 상황은 급변한다. 정체불명의 두 비밀요원이 ‘프리메이슨주의와 공산주의(Archivo de Masonería y Comunismo)’ 관련 문서보관실을 책임 맡은, 당시 프랑코 정부의 군경합동 심의관이며 경비대장인 이삭 가발돈(Isaac Gabaldón) 과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운전사 3인이 1939년 7월 29일 탈라베라 데 라 레이나(Talavera de la Reina)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영화에서 매우 잔인하게 묘사되는데 딸과 함께 붙잡힌 경비대장은 총구를 겨누는 비밀요원들에게 살려주라고 애원하지만 잔인하게 살해한

23) Carlos Fonseca, op. cit., pp. 158-159.

24) Emilio Martínez Lázaro, op. cit., 110분 17초- 50초.

다. 학살과 억압 그리고 폭력이 공화파에 의해서도 자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삭 가발돈은 자신의 딸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살려주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녀를 살해한다. 마지막 남은 운전기사는 자신도 단순한 노동자,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외치지만 그도 역시 살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공화파들과 국민과 사이에 존재했었던 상대에 대한 무찰 별한 잔악행위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프랑코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56명의 JSU 요원들을 연루시키고, ‘임시조치(expediente 30.426)’호에 의해 군사법정 심판대에 올린다. 사실 그녀들은 전술한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미 감옥에 있었으므로 외부에서 벌어진 살해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사회주의 통합 청년단’과 ‘스페인 공산당’을 재결성하여 혁명에 가담하고 새로운 스페인의 사회·법률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교도소의 상황도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 ‘13송이 장미들’ 중의 3인이었던 아나, 마르티나, 빅토리아가 호출을 받고 1차적으로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는다. 함께 있던 홀리아, 블랑카, 아델리나, 디오니시아(Dionisia), 비르투데스 등도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녀들도 재판에 회부될 준비를 한다.

법원으로 끌려가던 블랑카가 그녀를 만나려고 면회 온 아들 키케와 극적으로 상봉하고 아들과 엄마는 2분이라는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마지막 작별을 고한다. 한편 군사법정에서는 ‘영속적 전쟁위원회(Consejo de Guerra Permanente)’,의 제 9차위원회가 열리고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그녀들과 더불어 페냐 브레아를 비롯한 56명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프리메이슨주의에 경도되어 통합 사회주의 청년동맹(JSU)과 공산당과 연합하여 새 정부의 국법질서를 교란하고 전복하려는 음모를 획책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운 것이었다. 그녀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기에 이후 자신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진다. 각자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들을 쓰게 되고 총살형이 집행된다.

영화는 이 13인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재현하지는 않고 5명의 여

성들(디오니시아, 블랑카, 카르멘, 마르티나, 아델리나),<sup>25)</sup>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감독은 내전에 대한 영화들이 갖는 도식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감옥의 관료들도 감정 없는 식인귀신 같은 존재들이 아닌, 끌려가는 그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보편적 인간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여성들의 감옥에서의 나날들의 삶과 그녀들의 개인적 관계들, 감정적 변화들이 서로 뒤섞인다. 아마 그래서 그녀들이 직면한 총살대의 불길함 보다 감동적인 최종 클라이맥스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프랑코는 실제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만 처벌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실 그녀들 중에 내전에 직접 참여하여 손에 피를 묻힌 인물들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녀들은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곧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소녀들 나름의 쾌활함을 잃지 않는다. 당사자들처럼 가족들도 침착했는데, 많아야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실행되기 몇 일전 프랑코 군대에 대한 모반의 성격을 갖는 전술한 3인의 살해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프랑코 군대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보복을 위한 기회로 날조되고 군사 범정은 그녀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총살한 것이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고통을 겪고 희생당한 몇몇 여자들의 이야기를 단순나열하려는 게 아니라 그녀들을 한 시대의 비극적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체화 시키려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이 하나의 단순한 불행한 사건으로 강등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진입하여 총살대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홀리아가 ‘젊은 초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동료 죄수들도 다들 따라 부른다. 한편 딸이 처형장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홀리아의 어머니는 딸 대신 자기를 죽이라고 절규한다. 그녀들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담대한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25) 홀리아 베이스키는 12년형에 처해지고 6년 만에 풀려나는데 그녀는 JSU의 일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이 단체의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당시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면한다.(Jaime Céspedes Gallego, en <http://www.um.es/tonodigital/zum14/seccoones/estudios>)

우리는 젊은 초병. 미래를 향해 나가네. 고난으로 단련된 우리. 이겨내지 않으면 죽으리. 고결함은 우리의 표상.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우리의 젊은 피를 흘리리. 우리가 가야할 길에. 조심하라. 경계하라. 부르주아. 탐욕스러운 전쟁광들. 우리는 젊은 초병. [...] 26)

이 장면은 카를로스 폰세카의 원작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영화에서만 기술되는 내용이다. 고난으로 단련된 그녀들이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담고 있으며 프랑코파를 겨냥해서 부르주아 전쟁광들로 묘사하는 투쟁의식을 구체화한다. 등장인물 홀리아는 원래 원작소설에서 인용한 감독에서의 서신들에서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프랑코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들도 있다. 그녀가 사형을 선고 받고 난 후 쓴 마지막 편지는 그 이전의 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생을 단념하면서 더 강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감독은 정치적인 요소들을 가능하다면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감성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순수한 서술을 지향하고 있다.

#### IV. 역사와 진실: 당당했던 JSU 멤버들

프랑코는 스페인에서 적색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더 나아가 자유주의자들 까지도 자신의 정치적인 여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다. 그는 외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의한 스페인의 이데올로기적 전이에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국가를 구하려면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코의 한 언론 담당관이 “스페인 남성인구의 3분의 1을 제거해서라도 스페인에서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sup>27)</sup>고 주장했다는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6) Emilio Martínez Lázaro, op.cit., 102분: 7초-45초.

27) 앤터니 비버, op. cit., p. 695.

그들은 공화군 포로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스페인 전역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십만 명의 포로들을 잡아 가두는 작업에 착수한다. 1939년 4월 1일 이후에 체포된 사람들은 ‘나중에 잡힌 사람들’로 불렸다.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활동가들이나 전후에 저항을 계속한 게릴라 전사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 중 다수에게는 그들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 이름을 캐내느라 물고문이나 전기충격 같은 참혹한 고문을 동원하였다.<sup>28)</sup> 이러한 승리자 측에 의해 자행된 온갖 탄압과 추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인민전선 정부의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스페인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판치는 상실된 합법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프랑코의 봉기의 변도 또한 구호도 한 날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사회주의 청년단의 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경찰서에서의 고문과 감옥생활을 경험한 당시 16세의 니에베스 토레스(Nieves Torres)는 악랄한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경찰서에서 그들이 내게 했던 짓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마침내 그들은 나를 벤타스 감옥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내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했고 내가 답하기를 원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는 누구인지 [...] 나는 말하지 않았고,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 그들은 내 가슴에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설치하려 했지만 가슴이 거의 없자 그것을 귀와 고막에다 부착했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다. 다시 감옥의 방으로 돌아와 1달간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sup>29)</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에 매료되어 있던 희생자들이 추구했었던 가치는 보다 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평등과 자유가 지켜지는 1931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세워진 공화국을 발전시키고 수호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 정권에게 JSU는 엄청나게 위험한 단체

28) Ibid., pp. 698-699.

29) 프랑코 정권 성립 후 당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30,406호 약식심리에서 그녀가 자술한 내용을 카를로스 폰세카가 그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임. Carlos Fonseca, op.cit., p. 161.

였고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귀찮게 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13송이 장미들’ 중의 1인 이었던 필라르 부에노 이바녜스(Pilar Bueno Ibáñez)는 사라고사 출신으로 원래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드리드의 삼촌 집에 머물면서 봉제공으로 힘들게 일하게 된다. 봉제공장의 일이 공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야 먹고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들에게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결국 계급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학교에서 나온 후 나는 부르주아 계급의 사람들을 위한 한 봉제공장에서 일했는데, 여기서부터 나의 저항정신이 생겨났다. 충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저녁에 집에서 까지도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sup>30)</sup>

이와 같은 당시 JSU요원들의 활동사향이나 그들이 추구했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들, 인터뷰의 내용들로 우리는 그녀들이 일순간의 감상성에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가보다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과 역사의식을 갖고 투쟁했었다는 사실을 갈파할 수 있다. 블랑카라는 희생자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부끄럼 없이 살았고 자신은 죄가 없으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비록 그녀는 죽지만 아들에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원한을 갖지 말라고 당부한다. 죽음에 직면한 작별의 과정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과 모범적인 가톨릭교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의 아들이야. 이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 [....] 엄마는 고개를 들고 죽을 거야. 착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들 키케, 네가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 모두를 사랑하고 엄마와 아빠를 죽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마라, 절대로. 착한 사람들은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란다. 넌 꼭 좋은 사람이 돼야해. 공부 열심히 해. 아빠를 모범삼아서. 엔리께. 엄마와 아빠의 기억을 지워선 안 돼. 준비를 잘 해서 성체 배령을 잘 하겠다고 약속해다오.<sup>31)</sup>

30) Carlos Fonseca, op. cit., 79.

31) Ibid, pp. 297-298.

폰세카는 이렇게 패배자들이며, 억압의 대상자들이었던 이 여성들이 처한 당시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실증적이고 시각적인 여운을 남기는 증언과 기록들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가가 몇몇 비극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증언, 기록물들과 가족, 군대, 법률 서류, 재판기록, 최종선고문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 소설의 극적 흥미는 감옥으로부터 보낸 주인공들의 마지막 편지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sup>32)</sup>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 모든 사랑과 열정으로 부탁하오니, 그 누구도 저 때문에 울지 말아요. 저는 울지 않고 떠납니다. [...] 어머니, 엄마, 저는 저 세상으로 언니와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인간으로서 명예롭게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안녕,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히 안녕. 엄마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안아드릴 수도 입 맞춰 드릴 수도 없어요. 엄마도 동료들도 울지 말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sup>33)</sup>

이 서술은 1939년 8월 4일 훌리아 코네사(Julia Conesa)라는 19세의 소녀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는데 그녀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14명의 여죄수들과 살레사스(Salesas)의 법원에서 하루 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형제들과 어머니에게 보낸 애절한 내용의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녀가 감성적으로 죽음과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철한 역사의식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들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열게 해준다고 믿었던 진정한 정치체제가 공화정이었던 사회주의였던 그것 이전에 그녀들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과 역사의식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죽음으로 프랑코의 억압에 맞서 싸운 것이었다.

사실 2,000년대 초인 최근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측면의 역사적 조명은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작업임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32) Ángela López, 'Reseña de Trece Rosas Rojas, de Carlos Fonseca', *El Mundo*, 17, 05, 2004.

33) Carlos Fonseca op. cit., pp. 295-296. 밑줄은 필자의 것임.

었던 비헐(Vigil)과 알멜라(Almela)는 고백한다. “최근의 몇몇 특정 검사원들이 사건의 진실을 바꾸려고 한다. 이건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 우리의 다큐멘터리에서 1분의 추모시간을 부여하려 했으나 그것도 그들은 거부했다.”<sup>34)</sup> 더 나아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는데 보복의 두려움까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런 주제들에 접근하는 작업은 40년 동안 무자비하게 우리들을 상처 입혀온 자들의 감수성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었다.”<sup>35)</sup> 그러나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젊은 여성들에 대한 기억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역사의 기억과 복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2009년 8월 5일, ‘13송이 장미들’ 처형 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페인 공산당의 ‘13송이 장미들’ 후원회 총재인 레이레 파힌(Leire Pajín)<sup>36)</sup>은 ‘역사적 기억에 관한 법률(la Ley de la Memoria Histórica)’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을 힐난하는 성명서 발표는 이 사건에 대한 스페인내의 상반된 기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V. 맺는 말

프랑코 억압의 가장 잔인한 에피소드들 중의 하나, 1939년 8월 5일 13명의 여성들의 마드리드 동부 묘역의 담장 앞 총살 사건은 프랑코의 억압 속에서 매우 빨리,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신화로 바뀌었고 역사는 수십 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카를로스 폰세카의 『13송이의 빨간 장미들』 출판 이후, 보다 민주화된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 소설,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 현대 무용을 유발시키고 영원히 묻힐 것 같던 이 사건은 계속해서 살아 숨 쉬는 현재형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다양한 각도의 문화적 표현들은 저 가증스러웠던 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스

34) [http://wikipedia.org/wiki/El\\_Pais](http://wikipedia.org/wiki/El_Pais), 11, 12, 2005)

35) [http://www.elmundo.es/El\\_Mundo](http://www.elmundo.es/El_Mundo), 07, 04, 2003)

36) [http://www.xornal.com/artigo/2009/08/05/espa%C3%B1a/a%C3%B1os\\_trece\\_rosas\\_7855.html](http://www.xornal.com/artigo/2009/08/05/espa%C3%B1a/a%C3%B1os_trece_rosas_7855.html)

페인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작업을 가능케 해왔고, 이와 더불어 예술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숙고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작품들의 출판 이전까지는 몇몇 역사가들이 간헐적으로 언급했거나 스페인 내전 직후 망명한 몇몇 정치가들의 기억 속에 존재했을 뿐, 이 사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피해온 것이었다.

폰세카의 증언소설 『13송이 빨간 장미들』에서 제시하는 인터뷰 내용, 그리고 사건관련 일지, 최종적인 사법부의 선고 내용 등이 역사적 기록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에밀리오 마르티네스 라사로 감독에 의해 제작된 『13송이 장미들』 분석을 통해 감독이 이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살피고자 했으며 각론적으로 원작소설과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으로 그 중요한 흐름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식역사가 눈감고 있던 실제 사건을 기자들과 작가들이 발굴하고, 그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사회적 맥락으로 끌어내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화된 사회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승자들이 패배자들에게 최대한의 관용과 용서를 베풀 것이라는 선전도 한 날 허구에 불과 했으며 보복과 억압을 통한 살육의 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갈파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억압과 처형의 과정이 폰세카의 증언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역사기술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코가 “공산주의와 프리메이슨주의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자유주의와 정당들이 스페인의 재앙의 요인이라고 믿고 있었다.”<sup>37)</sup>는 사실에서 이후 그가 공화주의 추종자들에 대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JSU요원들, 특히 ‘13송이 장미들’의 활동사항이나 그들이 추구했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들, 인터뷰의 내용들로 보아 우리는 그녀들이 일순간의 감상성에서 길거리로 뛰쳐나갔다가보다는, 제 2공화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가오는 파시즘과 반민주적 정권에 대항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37) 존 엘리엇, 『히스페닉세계』, p. 196.

갖고 투쟁했었다는 사실을 갈파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김현균, 임호준, 『현 단계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동향과 전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7집, (2006): 185-208.
- 앤터니 비버, 『스페인 내전』, 김원중(역), 교양인, 2009.
- 조민현,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루이스 고이띠솔로와 가르멘 마르틴 가이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2집, (2001): 165-184.
- 존 H. 엘리엇(편집), 『히스패닉세계』, 김원중 외(역), 새물결, 2003.
- 황보영조, 『스페인 내전의 전쟁 이념 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2집, (2001): 125-164.
- BASANTA, Ángel, *La novela española de nuestra época*, Madrid, Anaya, 1990.
- BERTRAND DE MUÑOZ, Marse, “Novelas de la guerra”, *Ínsula*, 518/519, 1990.
- BLANCO AGÜINAGA, Carlos, RODRÍGUEZ PÚERTOLAS, Julio, ZABALA, Iris M.,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t. III, Madrid, Castalia, 1979.
- CERRADA CARRETERO, Antonio, *La novela en el siglo XX*, Madrid, Playor, 1983.
- “Entrevista con Jesús Ferrero, autor de *Las trece rosas*,” *El País*, 2003. 05. 12.
- FERRERO, Jesús, *Las trece rosas*, Madrid, Siruela, 2003.
- FONSECA, Carlos López, *Trece rosas rojas*, Madrid, Temas de Hoy, 2004.
- GALLEGO, Jaime Céspedes, “Las trece rosas de la Guerra Civil”, en <http://www.um.es/tonodigital>
- GARCÍA VIÑO, Manuel, *La novela española de Posguerra*, Madrid, Publicaciones españolas, 1971.
- JÜNKE, Claudia(2006)“<<Pasarán años y olvidaremos todo>>: La Guerra Civil española como lugar de memoria en la novela y el cine actuales en España”,

in Winter(2006): 101-129.

LUENGO, Ana, *La encrucijada de la memoria colectiva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en la novela contemporánea*, Berlín Verlag Walter Fray, 2005.

MAERTÍNEZ LÁZARO, Emilio, *Las trece rosas*, Guión: Ignacio Martínez De Pisón, 2007.

MONTOLIÚ, Pedro, *Madrid en la Posguerra. 1936-1946. Los años de la Represión*, Madrid, editorial Sílex, 2006.

PUERTOLAS, Rodríguez, *La literatura facista*, Madrid, Ediciones Akal, 1986.

SOBEJANO, Gonzalo, *Lección de la novelas (España entre 1940 y ayer)*, Madrid, Marenostram, 2007.

[http://www.xornal.com/artigo/2009/08/05/espana/años\\_trece\\_rosas\\_7855.html](http://www.xornal.com/artigo/2009/08/05/espana/años_trece_rosas_7855.html)

[http://wikipedia.org/wiki/El\\_Pais](http://wikipedia.org/wiki/El_Pais), 2005. 11. 12)

[http://www.elmundo.es/El\\_Mundo](http://www.elmundo.es/El_Mundo), 2003. 07. 04)

[http://www.wikipedia.org/wiki/Spanish\\_Civil\\_War](http://www.wikipedia.org/wiki/Spanish_Civil_War)

❖ ABSTRACT

An observation on the Franquist repression against the defeated around Carlos Fonseca's *Las trece rosas rojas* and Martínez Lázaro's *Las trece rosas*

Sun-Ki Song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contribute to throw light upon one of the saddest and most dramatic chapters of the Franquist repression after the Spanish Civil War. Following the occupation by the Franquist Army, the communist leaders tried to build an underground organization called JSU to fight against Franco's regime. Nevertheless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43 men and 13 women, were arrested and later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accusation of 'adhesión a la rebelión' (supporting the rebellion). The execution of those thirteen JSU young militants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history of Spain, despite that the facts were silenced and remained unknown until recent years. This tragic post-war event has been reflected recently by journalists, novelists and movie directors through their works, reconstructing the story of those women. Among them stand out the works of journalist and moviemaker Martínez Lázaro.

Through our study, we reach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e can define Fonseca's work as a factual testimonial novel, in the sense of that Fonseca reinforce its verisimilitude through interviews with the bereaved families and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Secon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Fonseca's novel and Martínez Lázaro's movie, we have reache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not essential differences. The only noticeable difference is that Martínez Lázaro tells the story from an objective viewpoint, although a bit sentimental, in contrast with the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Fonseca's work. Third, 'Las trece rosas' knew well what they were doing, and they took the streets not out of a momentary sentimentalism but with great courage and strong ideological conviction, to fight against Franco's regime and to defend the Spanish Second Republic.

---

**Key Words**

프랑코의 탄압, 스페인 내전, 13송이 장미들, 카를로스 폰세카, 마르티네스 라사로  
Franquist repression, Spanish Civil War, Las trece rosas, Carlos Fonseca,  
Martínez Lázaro

논문접수일: 2009. 11. 11.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